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계산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방법론적문제

림광남

현시기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를 확립하고 더욱 개선해나가는것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7페이지)

일반적으로 경제구조는 나라의 경제를 이루고있는 각이한 부문, 요소들의 비례관계를 특징짓는다. 경제구조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경제부문구조이다. 경제부문구조는 주로 생산부문에서 매개 부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부문들사이의 량적비율관계를 반영한다.

경제부문구조를 통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문구성비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를 계산, 분석하여왔다.

부문구성비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는 국내총생산액가운데서 개별적생산부문들의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지표로서 해당 시기 국내총생산액가운데서 개별적생산부문들의 지위와 역할, 개별적부문들사이의 균형관계를 해명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해당 시기 경제부문구조가 자립적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을 해명하는데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이 지표들이 단순히 일정한 시점현재로 생산구조를 특징지으며 동태적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개 생산부문들의 생산액비중의 변화률사이의 호상관계를 반영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표들은 주로 해당 시기 생산구조를 분석하기 위한데 리용하여왔다.

경제부문구조가 자립적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을 통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부문구성비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를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지표들을 설정하여 대비적연구를 진행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의 계산에서 중요한것은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의 본질적내용에 맞게 통계지표들의 계산방법론을 옳게 확립하는것이다.

경제의 부문구조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부문들이 출현하고 그들사이의 생산소비적연계가 밀접해지는 과정에 부단히 개선완비되어나간다.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의 계산방법론을 확립하는것은 경제부문구조의 개선완비과정을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의 계산방법론을 확립하여야 한다.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특징짓기 위하여서는 우선 부문구성비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를 옳게 계산하여야 한다.

부문 및 부문내부구성비지표에 기초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분석계산한다는것은 국내총생산액에서 개별적부문들의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개별적부문의 총생산액가운데서 내부부문들의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기초하여 분석계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구성비지표계산에서는 먼저 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부문구성비지표를 계산하고 다음 부문내부구성비지표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경제의 자립성정도를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산물의 수요를 보장하자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부문내부구성비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구성비} = \frac{\text{부문내부 개별적내부부문 총생산액}}{\text{해당 부문 총생산액}} \times 100(\%)$$

구성비지표계산에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개별적부문 또는 내부부문들의 총생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것이다. 인민경제적범위에서 개별적부문들의 구성비지표를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분모에 놓이는 총생산액지표의 계산방법과 일치하게 부문들의 총생산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총생산액을 계산하는데서는 국내총생산액지표를 리용할수 있다.

국내총생산액지표를 리용하는 경우에 개별적부문의 총생산액도 국내총생산액지표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들과 대비성이 보장되도록 계산하여야 한다.

국내총생산액지표를 가지고 경제부문구조의 다면성을 계산분석하는 경우에는 비생산적봉사료수입금을 덜고 대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구성비지표계산에서 중요한것은 인민경제의 생산부문별분류를 바로하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생산부문별분류를 바로하는것은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에 적응하게 생산부문들의 포괄범위를 바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액을 옳게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인민경제 생산부문별분류에서는 여러가지 방법론들을 적용할수 있다.

생산부문은 우선 사회적재생산의 순차적계기에 따라 물질적부를 현물형태로 직접 창조하는 부문과 생산적으로 봉사하는 부문,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참가하는 부문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물질적부를 현물형태로 직접 창조하는 부문에는 공업, 농업, 건설부문이, 생산적으로 봉사하는 부문에는 생산적체신부문이, 생산과정을 사회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참가하는 부문에는 화물운수, 자재공급과 상업부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매 생산부문들을 그것이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생산기술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가지 내부부문들로 구분할수 있다.

생산부문은 또한 순수부문과 경영부문으로 구분할수 있다.

순수부문은 생산과정에서 노는 사람들의 활동상성격에 따라 같은것들을 묶어놓은것이고 경영부문은 경영관리상의 요구로부터 사람들의 기본적인 활동형태에 따라 각이한것들을 묶어놓은것이다. 현행실무에서는 성, 중앙기관들이 경영부문적인 견지에서 조직되었

다 하더라도 생산액은 순수부문적인 견지에서 장악계산되고있다.

이러한 부문분류방법들은 지금까지 생산액계산과 경영관리상견지에서 적합한것으로 인정되어왔으며 통계계산의 견지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의 목적의 견지에서 이러한 부문분류방법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부문분류방법들이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힘들다는것이다.

따라서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특징짓기 위한 부문구성비 또는 부문내부구성비를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부문들을 생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수 있도록 세분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생산액을 계산하여 대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분류는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세분되어간다.

구성비지표계산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구성비지표로 생산액보다도 주로 부문들의 생산능력지표를 리용하는것이다.

물론 생산액지표는 생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실제로 충족시키고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지만 일정한 시점현재로 생산액지표를 가지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킨다고 말할수 없다. 그리고 경제부문구조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부문구조를 갖추고 개선완비하여야 하므로 구성비지표는 현재의 생산액보다도 생산능력지표를 가지고 계산, 대비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생산능력지표를 리용하자면 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생산능력 또는 개별적인 부문에서의 생산능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능력은 현물지표로 나타나지만 인민경제적인 생산능력이나 부문전체적인 생산능력은 현물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민경제적범위나 부문전체적인것과 대비하여 구성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액지표를 조건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특징짓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산물수요충족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물수요충족결수는 생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현재의 생산액 또는 생산능력을 대비하여 계산할수 있다.

$$\text{생산물수요} = \frac{\text{현물생산량(또는 생산능력)}}{\text{충족결수}} \quad \text{생산물수요}$$

다방면적인 부문구조는 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수요를 충족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생산물수요충족결수를 계산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과 경제의 자립성정도를 특징지을수 있다.

생산물수요충족결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생산부문이 사회적수요를 비교적 보장할수 있게 갖추어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물수요충족결수는 그 본질적내용으로부터 부문별현물생산량에 기초하여 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여러가지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따라서 개별적인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현물적인 수요로 나타나기때문이다.

생산물수요충족결수계산에서는 해당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해당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생산계획자료나 생산물수요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규정할수도 있다.

인민경제적범위에서의 생산물수요충족결수는 부문별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들을 단순 평균 또는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할수 있을것이다.

부문별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들을 단순평균하는 방법으로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계산분석하는 방법은 매개 생산물들의 수요충족에서의 중요성을 같은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해당 시기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놓고볼 때 그리고 전략적견지에서 볼 때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다같이 충족시킬수 없다.

따라서 중요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중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충족정도를 분석계산하게 된다. 이로부터 부문별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들을 평균하여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을 계산분석할 때에는 중요생산물만을 선택하든가 또는 생산물들의 수요충족결수들을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연구되는 표식은 수요충족결수이며 무게는 각이한 생산물들의 생산액으로 될수 있다.

그리고 해당 부문 생산물의 수요충족결수가 1을 넘는 경우에는 1로 제한하며 생산액도 그 수준에 맞게 제한하여 무게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 부문의 수요충족정도가 다른 부문의 부족되는 수요충족정도를 메꿀수 있는 경향을 없앨수 있다.

생산물수요충족결수계산에서 분자에 해당 생산물의 현물적인 생산량을 놓게 되는것은 현실적인 수요충족정도를 알자는데 있으며 생산능력을 놓게 되는것은 잠재적인 수요충족정도를 파악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부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정도를 파악하자면 주로 현재의 생산량과 대비하며 새로운 부문들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충족정도를 파악하자면 새로 조성된 생산능력과 대비하여 평가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을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을 특징짓는 통계지표들의 계산방법론을 확립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를 갖추었다는것은 생산물의 시초생산단계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국내적범위에서 완결되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은 우선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비지표를 계산하여 분석할수 있다.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비지표는 경제의 자립성정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가 자립적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료, 반제품생산단계의 비중이 완제품가공단계에 비하여 훨씬 큰것이 일반적인것으로 된다.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비는 가공단계별비율을 계산하여 해명할수 있다.

$$\text{생산물의 가공 단계별비율} = \frac{\text{완성단계의 생산고}}{\text{시초단계의 생산고}}$$

생산물의 가공단계별구성비지표계산에서 중요한것은 시초단계와 완성단계의 계선을 옳게 가르는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한 리해를 바로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료, 반제품생산단계가 시초단계이고 완제품생산단계는 완성단계이다.

하나의 부문안에서 생산기술공정이 완료되는 생산물에 대하여서는 부문에 속하는 기업소들을 시초단계의 기업소들과 완성단계의 기업소들로 구분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단계별구성비를 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여러개의 부문들을 거쳐 완성되는 생산물에 대하여서는 시초단계에 속하는

부문들과 완성단계에 속하는 부문들을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생산고를 계산하여 지표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계산할수도 있고 하나의 부문내에서도 계산할수도 있다. 그것은 생산물이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완성될수도 있고 한 부문내에서 내부부문들사이에 완성될수도 있기때문이다.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은 또한 원자재자급률과 설비국산화비중지표들을 계산하여 분석할수 있다.

원자재자급률지표는 자재총공급량가운데서 국내산자재의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 특히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을 간접적으로 특징짓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자재자급률은 개별적인 자재종류별로나 개별적인 제품별로도 계산할수 있으며 개별적인 부문적범위에서도 계산할수 있다.

원자재자급률이 1과 같다는것은 원자재총량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보장되었다는것을 의미하며 원료, 반제품생산단계인 시초단계의 모든 공정이 원만히 갖추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설비국산화비중은 설비총종수가운데서 국산화된 설비종수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완제품인 로동수단의 생산단계에서 경제의 자립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될수 있다.

만일 원자재자급률과 설비를 비롯한 완제품의 국산화비중이 모두 1과 같다면 그것은 시초단계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제부문구조의 종합성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원자재자급률이 1과 같고 완제품의 국산화비중이 그보다 낮다면 그것은 시초단계의 종합성이 보장되었다고 하여도 완성단계에서는 필요한 공정들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원자재자급률이 1보다 작고 설비국산화비중이 원자재자급률보다 높다면 그것은 시초단계의 종합성이 비록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완성단계의 종합성 즉 완제품조립에 필요한 공정이 비교적 원만히 갖추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제부문구조의 자립성은 경제부문구조의 다방면성과 종합성을 특징짓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연구목적에 맞게 계산하여 분석할수 있다.

실마리어 자립성, 통계지표계산